

『嶺南樓詩韻』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 수록 인물 분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ata Value of YoungNamRooSiun(嶺南樓詩韻)

-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recorded characters -

전 재 동(Jae Dong Jun)**

< 목 차 >

| | |
|-----------------------------------|---------------------------|
| I. 序 論 | III. 『嶺南樓詩韻』 作者層 분석을 통해 본 |
| II. 『嶺南樓詩韻』 수록 題詠詩 작자의 官 職別 분류 | 영남루 각 건물의 기능 |
| | IV. 結 論 |

초 록

이 논문은 최근에 소개된 필사본 『嶺南樓詩韻』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영남루시운』은 영남루 본당 마루를 비롯하여 凌波堂, 枕流閣, 客舍東軒, 德民亭, 攬秀亭 등 6개 건물을 대상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창작된 記文, 上樑文, 題詠詩 등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 작가는 누적 인원 412명이며, 작품 수는 散文 11편, 韻文 559首 등 총 570편이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題詠詩 作家는 慶尙道觀察使, 慶尙道都事를 비롯하여 密陽, 淸道, 慶州, 昌原 등지의 지방관, 宣慰使, 敬差官, 御使, 宣傳官, 護送官 등 文武관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누적인원 412명 가운데 318명이 중앙과 지방의 관원들이며, 이 수치는 전체 작품의 77%를 차지한다. 『영남루시운』에 수록된 작가들의 관직별 분류를 통해 조선전기 영남루 題詠詩 작가들은 일반 시인묵객들보다 특정 임무를 띠고 밀양 지역에 파견된 관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영남루는 勝景 감상의 목적 이외에 관찰사나 도사의 집무 공간, 왜국 사신 접대 등의 공무가 이루어지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嶺南樓詩韻, 嶺南樓, 凌波堂, 枕流堂, 客舍東軒, 德民亭, 攬秀亭, 題詠詩, 慶尙道觀察使, 慶尙道都事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material value of the recently introduced manuscript YoungNamRooSiun(嶺南樓詩韻). YoungNamRooSiun(嶺南樓詩韻) is a collection of six buildings including the Yeongnamroo(嶺南樓) main hall floor, Reulpadang(凌波堂), Chimryugak(枕流閣), Gaksadonghun(客舍東軒), Dukminjung(德民亭), and Namsujung(攬秀亭). And poetry. The number of artists listed here is 412, and the total number of works is 570 including 11 prose and 559 rhyme. Through the text, YoungNamRoo(嶺南樓) was able to confirm that it was a space where official affairs such as observatory, master's office space, and hospitality reception were held. Based on this, an attempt should be made to take the reliability of the YoungNamRoo(嶺南樓) Ruling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original texts of the YoungNamRoo(嶺南樓) Ruling Prize and the collected writers.

Keywords: YoungNamRooSiun(嶺南樓詩韻), Reulpadang(凌波堂), Chimryugak(枕流閣), Gaksadonghun(客舍東軒), Dukminjung(德民亭), Namsujung(攬秀亭), Gyeongsangbukdo observer(慶尙道觀察使), Gyeongsangbukdo master(慶尙道都事)

* 이 논문은 2018년 밀양문화원과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플러스21사업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4회 밀양향현추모 학술대회 밀양 지역의 출판문화와 『영남루시운』의 활용에서 발표된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人物群과 嶺南樓 건물의 기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플러스사업팀 박사후연구원 (auto4756@hanmail.net)

•논문접수: 2018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0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353-371, 2018.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12.353]

I. 序論

이 논문은 최근에 소개된 필사본 『嶺南樓詩韻』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영남루시운』은 영남루 본당 마루를 비롯하여 凌波堂, 枕流閣, 客舍東軒, 德民亭, 攬秀亭 등 6개 건물을 대상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창작된 記文, 上樑文, 題詠詩 등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작가는 누적 인원 412명이며, 작품 수는 散文 11편, 韻文 559首 등 총 570편이다(남권희, 전재동 2018). 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전재동 2018).

<표 1> 『嶺南樓詩韻』 所載 작가 및 작품 수량

| 구분 | | 本堂 | 凌波堂 | 枕流閣 | 客舍東軒 | 德民亭 | 攬秀亭 | 계 |
|----|----|-----|-----|-----|------|-----|-----|-----|
| 작가 | | 202 | 108 | 17 | 41 | 6 | 38 | 412 |
| 작품 | 산문 | 5 | 1 | 1 | 0 | 3 | 1 | 11 |
| | 운문 | 260 | 183 | 19 | 52 | 5 | 40 | 559 |
| | 소계 | 265 | 184 | 20 | 52 | 8 | 41 | 570 |

<표 1>에 제시된 『嶺南樓詩韻』의 수록 작품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산문은 <嶺南樓記>·<嶺南樓重修記>·<凌波堂重創記>·<枕流堂記文>·<守山縣德民亭記>·<德民亭>·<攬秀亭記> 등 記文 7편, <嶺南樓重修上樑文> 2편, <嶺南樓詩序> 1편, 後識 1편 등 11편이다. 운문은 五言絶句·五言律詩·七言絶句·七言律詩 형식의 漢詩 559首이다. 漢詩는 絶句나 律詩 등의 定型詩 외에도 嶺南樓重修祝賀詩, 秋字二十韻 및 徐居正의 嶺南樓十景 등 古詩와 長篇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嶺南樓詩韻』은 편찬자나 편찬 내력을 짐작할 수 있는 序跋文이나 目次는 없고, <嶺南樓記>·<凌波堂重創記>·<枕流堂>·<客舍東軒>·<守山縣德民亭記>·<攬秀亭記>처럼 본문을 6갈래로 大分할 수 있는 산문이 卷頭에 제시되어 있다. 산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漢詩는 해당 건물에 天字·橫字·頭字 등 특정한 韻目을 제시한 다음, 해당 작품을 수록했다. 간혹 해당 韻目과 다른 작품을 함께 수록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처럼 『嶺南樓詩韻』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영남루에 揭板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영시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기존에 알려진 영남루 題詠詩가 대부분 임란 이후-즉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자료는 향후 영남루 題詠詩 관련 연구에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嶺南樓詩韻』의 가치는 여기에 수록된 산문과 운문이 영남루 관련 6개 건물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 특히 산문 중에는 仇有濶과 安宙의 <嶺南樓重修上樑文> 각 1편, 權擘의 <守

山縣德民亭> 記文, 權攀의 <德民亭> 後識 등은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이다.

『영남루시운』에 대한 소개 및 서지 분석은 이미 시도되었으므로(전재동 2017, 123-143), 본고에서는 『영남루시운』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冒頭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남루시운』에는 既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詩人墨客들이 120여 명 가량 들어있다. 이들의 신분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영남루에 올라 시를 남긴 이들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남루시운』의 자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嶺南樓詩韻』 수록 題詠詩 작자의 官職別 분류

밀양시 내일동에 위치한 영남루는 龍頭山과 推火山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밀양강변에 자리 잡아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로 명성이 자자했다. 영남루의 초창기 모습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와 좌우로 凌波堂과 枕流堂의 翼樓를 갖춘 화려한 건물로 중수된 이후,¹⁾ 안동의 映湖樓, 진주의 蠡石樓와 더불어 3대 누각으로 알려졌다. 영남루의 勝景은 1607년 경 明의 王圻와 그의 아들 王思義가 완성한 『三才圖會』에도 빼어난 경치로 알려질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영남루의 勝景은 영남루의 원래 역할과 기능을 오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密陽誌』에 따르면, 영남루는 密陽府 客舍의 부속 건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영남루를 방문하는 목적은 공무 수행 중 숙박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있었지, 遊賞이나 宴會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遊賞과 宴會는 부차적으로 동반되었다. 『嶺南樓詩韻』에 시를 남긴 이들은 경상도나 밀양을 다스리는 관찰사나 수령, 서울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敬差官, 宣慰使, 御史, 護送官 등 관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여기에 일반인들이 단순히 유람을 목적으로 영남루를 방문하고 난 뒤에 시를 남긴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제영시 작가들 가운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남루에 머물면서 제영시를 남긴 인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慶尙道觀察使와 慶尙道都事

첫 번째 그룹은 慶尙道觀察使와 慶尙道都事들이다. 觀察使制는 고려 성종 때 처음 설치되

- 1) 영남루가 좌우의 翼室을 갖춘 형태로 변모된 것은 1495년 밀양부사 金永鍾가 望湖堂을 본당 옆으로 옮기고 凌波堂으로 명명한 이후부터이다. 그 뒤 1542년 밀양부사 박세후가 침류당을 대대적으로 重修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嶺南樓詩韻』 「凌波堂重創記」(申光漢 著) 및 「枕流堂記」(朴世煦 著) 참고.
- 2) 王圻, 『三才圖會』 地理 卷13 <東夷>, “嶺南樓 在慶尙道密陽府 館東山腰 倚郭而構 三面敞豁 登覽曠然 下有長江 江外有大野 有栗林 蒼翠極目 江流屈曲 蜿蜒而長 隱見長林間 虹明繡錯 殆非人境 其勝覽爲嶺南第一 東有望湖堂 西有臨鏡軒 皆極灑落” 정출현(2017. 26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었으며, 州府를 관할하기 위한 지방관이다. 이후 공양왕 2년(1390)에 실질적인 기관으로 관찰사를 두었다가, 공양왕 4년(1392)에 觀察使制를 폐지하고 按廉使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八道制의 확립과 함께 관찰사제도도 정착되었으며, 按廉使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중2품의 高官이 임명되었다.

관찰사의 임기는 世宗 30년(1448)까지는 1년을 원칙으로 하였고, 端宗 2년(1454)년까지는 30개월, 그 후 『經國大典』이 반포되면서 360일로 고정되었다.(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148) 고려~조선시대에 경상도관찰사와 경사도도사를 역임한 명단과 재임기간 등은 『增補慶尙道先生案』(안동:한국국학진흥원, 2005)에 자세히 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경상도관찰사와 경사도도사 117인과 수록 작품을 6개 건물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영남루 본당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관찰사는 고려시대 안렴사 朴中美(미상)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尹卓然(1538-1594)까지 누적인원 58명이다. 이 중 金湊(?-1404)와 박중미 2인은 고려시대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宋贊(1510-1601)은 1565년 05월-1565년 09월 및 157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두 번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었으며, 두 번 영남루에 올라 제영시를 남겼다. 洪聖民(1536-1594)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1580년 8월부터 이듬해 9월 및 1590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두 차례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었다.

凌波堂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관찰사는 李季隣(1401-1455)부터 兪泓(1524-1594)까지 누적 인원 38인이다. 客舍東軒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관찰사는 權孟孫(1390-1456)부터 尹卓然(1538-1594)까지 총 12인이다. 德民亭에 제영시를 남긴 이는 金世熙(생몰년미상) 1인으로 당시 그의 관직은 合浦兵使였다. 남수정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관찰사는 宋濂(미상)부터 沈守慶(1516-1599)까지 총 7인이다.

이상에서 정리된 경상도관찰사 중 건물에 관계없이 중복되는 인원을 정리해 보면, 權孟孫 2회, 權應昌(1505-1568) 2회, 金安國(1478-1543) 2회, 金永濡(1418-1494) 2회, 李季隣 2회, 李思鈞(1471-1636) 3회, 李宣(?-1459) 2회, 李清(1483-1549) 2회, 朴素立(1514-1582) 2회, 宋璣(미상) 4회, 宋純(1493-1582) 3회, 沈守慶(1516-1599) 4회, 吳祥(1512-1573) 2회, 元孝然(?-1466) 2회, 兪泓(1524-1594) 4회, 尹慈(미상) 2회, 尹卓然 4회, 尹壕(1424-1496) 2회, 鄭萬鍾(?-1549) 3회, 曹光遠(1492-1573) 7회, 趙士秀(1502-1558) 3회, 崔世節(1479-1535) 2회, 崔顛(미상) 2회, 沈通源(1499-?) 2회, 洪聖民 2회 등이다. 그러므로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경상도관찰사 수는 1360년대부터 1580년대까지 220여 년 간 총 75인이라 할 수 있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경상도관찰사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은 權攀(1419-1472)이다. 권반은 양촌 權近의 손자이자, 權攀의 동생이다. 『嶺南樓詩韻』에 기재된 권반의 관직은 都巡察使 花山君인데, 『增補慶尙道先生案』 및 조선왕조실록에는 권반을 경상도순변사로 파견한 기록이 없다. 다만,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德民亭> 記文에 “천순 정축년 12월일 수충경절 좌익공신 통정대부 판중부시사 겸선전관 지재선생우마주 영가 권반 자룡 서[天順丁丑季冬有

日輸忠勁節佐翼功臣通政大夫判宗簿寺事兼宣傳官止齋先生牛馬走永嘉權攀子龍序]”라는 기록을 통해 권반이 영남루를 방문한 시기가 1457년 무렵으로 짐작할 수 있다.

曹光遠 역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1514년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된 曹繼商(1466-1543)의 아들로, 1555년(명종10) 11월에 공조판서에서 경상도관찰사로 도입하여 1556년(명종11) 9월 지중추부사로 이임하였다. 아울러 『明宗實錄』 10년(1555) 5월 16일자에는 조광원을 경상도도순찰사로 파견한 기록이 있으므로 조광원이 영남루를 방문한 것은 1555년에서 1556년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밀양에 와서 영남루 본당을 비롯한 攬秀亭까지 다양한 韻目으로 총 7편의 題詠詩를 남겼다.

수량 면에서 가장 많은 題詠詩를 남긴 이는 洪聖民이다. 그는 10년 사이에 두 번이나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으며, 영남루 본당 및 凌波堂 題詠詩 17수를 남겼다. 이 수량은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題詠詩 가운데 단일 개인으로는 가장 많다.

두 번째로 주목할 그룹은 慶尙道都事들이다. 조선시대에 都事는 ‘亞監司’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관찰사 다음 가는 벼슬로 5품 또는 6품이 맡았다. 도사의 역할은 지방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科試를 담당하였다. 慶尙道觀察使 뿐만 아니라 영남루와 주변 건물들은 慶尙道都事의 집무 공간이기도 했다. 『增補慶尙道先生案』을 바탕으로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慶尙道都事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루 본당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도사는 鄭樞(미상)를 비롯하여 金棕(미상)까지 총 17인이다. 능과당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도사는 李全之(1394-1468)부터 鄭姬藩(미상)까지 16인이다. 枕流堂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도사는 柳洙(미상)부터 李銘(1521-?)까지 6인이다. 객사동헌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도사는 權枝(미상) 1인이다. 남수정에 제영시를 남긴 경상도도사는 南應龍(1514-1555)과 周怡(1515-1564) 2인이다.

그러므로 『嶺南樓詩韻』에 작품을 남긴 慶尙道都事의 누적 인원은 총 41명이다. 특이한 점은 경상도도사로 영남루를 방문한 이들은 德民亭에는 제영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중복된 인물과 횃수는 權枝 2회, 金棕 2회, 南應龍 2회, 梁應台(1517-?) 2회, 柳洙 2회, 李銘(1521-?) 2회, 辛孟卿(1482-1519) 2회, 辛駟(미상) 2회, 張文輔(1516-1566) 2회, 趙澄(1511-1574) 2회 등이다. 그러므로 『嶺南樓詩韻』에 제영시를 남긴 慶尙道都事는 총 31명으로 파악된다.

경상도도사 31인의 제영시를 경상도관찰사 75인의 제영시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 사실이 눈에 띈다. 첫째는 영남루 본당과 능과당을 대상으로 한 작품수이다. 경상도관찰사들은 본당과 능과당에 98수의 시를 남긴 반면, 경상도도사들은 본당과 능과당에 32수의 시를 남겼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제영시는 영남루 본당에 관련된 작품이 전체의 1/2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의문을 가질만하다.

둘째는 경상도도사들의 침류당 관련 시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침류당 제영시는 총 19首이며, 이중 경상도도사들의 작품이 총 6편으로 전체 수량의 1/3에

가깝다. 반면 경상도관찰사들의 침류당 제영시는 전혀 없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침류당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密陽府使을 비롯한 고을 수령들

영남루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었음을 반증하는 자료는 밀양부사를 비롯한 인근 고을의 청도군수, 경주군수 등인 남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남루를 방문한 지방관들은 가까운 고을뿐만 아니라, 김천, 구미, 청주 등지에서도 찾아왔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지방관들의 제영시 및 散文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지방관은 누적 인원 73이다. 이 중에서 密陽府使는 權檣(1478-1548), 金克一(1522-1585), 金澥(1534-1593), 李慶祐(1518-1574), 李圖男(미상), 朴世熙(1493-1550), 朴承侃(1508-1588), 任從善(미상), 張籍(미상), 全彭齡(1480-?), 崔盖國(미상), 許誠(?-1502), 李伯常(미상) 등 13인이다. 慶州府尹은 具思孟(1531-1604), 權克和(미상), 柳仁淑(1485-1545), 黃瑋(1464-1526), 柳觀(1346-?) 등 5인이다. 淸道郡守는 李滄(1440-1516), 安宙(1495-?), 楊洪(1508-1564), 崔雲(미상), 崔德之(1384-1455), 朱邵(미상) 등 6인이다. 星州牧使는 盧慶麟(1516-1568), 申溥(1449-?), 曹禧(1490-1564) 등 3인이다.

또한 梁山郡守 金自修(1438-1510), 靈山縣監 申汝棕(미상), 永川郡守 金希弼(미상), 昌原府使 蔡紹權(미상), 東萊府使 洪淵(미상), 陝川郡守 河孟啞(1403-1491) 등은 밀양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다. 善山府使 柳希轍(1453-1514), 安東府使 金光轍(1493-1550), 義城縣令 俞好仁(1445-1494), 豐基郡守 周世鵬(1495-1554)은 영남의 지방관들이다. 이 밖에 忠州牧使 朴祥(1474-1530)도 영남루를 방문하여 題詠詩를 남겼다. 전직으로는 前郡守 孫興緒(미상), 前郡守 曹淑(1504-1582), 前泗川縣監 李光軫(1513-1566) 등이 있다. 고을 수령 외에도 密陽教授 金宗裕(1429-?)·安承宗(1483-?)·柳侑(미상) 등 3인과 金海教授 韓卷(미상), 密陽訓導 仇有溫(미상) 등도 題詠詩가 있다.

3. 敬差官을 비롯한 특별 파견 관리

① 敬差官

敬差官은 國防, 外交, 財政, 賑濟, 救荒, 獄事, 推刷 등의 임무를 띠고 중앙에서 파견한 堂下官級 奉命出仕官員이다(김순남 2004, 336-338). 조선 전기 경차관 파견에 대한 기록은 태조 5년(1396) 倭寇를 방어하기 위해 禮賓卿 辛有定과 大將軍 吳用權을 충청·전라·경상도에 파견한 것이 처음이다.³⁾ 『嶺南樓詩韻』에는 1440년에 파견된 愼幾를 비롯하여 20인의 경차관과 그들의 題詠詩가 수록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루 본당에 제영시를 남긴 경차관은 愼幾(?-1493)을 비롯하여 尹又新(1534-1594)까지 총 6인이다. 凌波堂에 제영시를 남긴 경차관은 趙元祉(미상)부터 金宇弘(1522-?)까지 총 7인이다. 객사동헌에 제영시를 남긴 경차관은 趙秋(미상)부터 鄭垠(미상)까지 총 4인이다. 남수정에 제영시를 남긴 경차관은 李壽鐵(미상)부터 朴承任(1517-1586)까지 2인이다.

이들 중 康晉(미상)은 본당과 객사동헌 2곳에 題詠詩를 남겼다. 그러므로 누적 수량을 제외하면, 경차관으로 파견된 인원은 19인이라 할 수 있다. 실록을 통해 파견 사실이 확인되는 경차관을 다시 파견 목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愼幾는 재앙으로 상한 곡식을 살피기 위해서였다.⁴⁾ 沈連源(1491-1558)은 진휼 경차관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으며,⁵⁾ 그러므로 두 사람의 임무는 農政과 민심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趙士秀(1502-1570)는 星州의 史庫에 일어난 화재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⁶⁾ 元孝然(1466-?)은 對馬州 敬差官의 임무를 띠고 對馬島主에게 예물을 전달하였다.⁷⁾ 鄭垠은 합천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대장경을 인출하기 위한 印經敬差官이었으며,⁸⁾ 이수철은 병조정랑의 신분으로 경상도의 軍籍 작성 및 賑恤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다.⁹⁾

愼幾, 沈連源, 李壽鐵 3인은 경차관의 일반 업무인 재상의 실태 파악, 賑恤, 군적 점검 등의 對內的 업무를 수행한 반면, 원효연은 對倭 外交를 수행하였다. 1454년 경차관 원효연이 對馬島主에게 가져 간 예물은 白細綿紬 10匹과 白細綿布 10필 등 16종이 넘었다. 조선 초기는 對馬島主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세종 원년에는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선에서는 대마도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폈으며, 남방 왜인들에게 예물을 주며 달래는 방법을 택했다. 세종 24년에 파견된 경차관 金連枝가 보고한 呂島副千戶 崔浣의 왜인 침수사건을 推鞠으로 마무리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반영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김순남 2008, 84-88).

1457년에 鄭垠이 경상도에 경차관으로 파견된 일은 조선 초기의 대장경 인출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이다. 정은이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할 당시의 기록은 李廷馨의 『東閣雜記』에 보다 자세하게 실려 있다. 1457년 세조는 尹贊과 정은을 경차관으로 파견하여 대장경 50부를 인출토록 명하였으며, 승려 信眉와 竹軒 등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다. 아울러 각도의

3) 『太祖實錄』 5년(1396) 8월 12일, “以禮賓卿辛有定 爲忠淸全羅慶尙道敬差官 備防倭也” 당시 오용권이 대장군으로 참여한 기록은 없으나, 정현재의 연구에서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정현재(1979).

4) 『世宗實錄』 22년(1440) 11월 29일, “遣禮賓尹愼幾于慶尙道, 巡審禾穀災傷”

5) 『中宗實錄』 28년(1533) 11월 9일, “命議政府舍人黃憲 司僕寺副正沈連源 爲賑恤敬差官 分遣慶尙左右道”

6) 『中宗實錄』 33년(1538) 12월 9일, “史庫之火 似非巢草所可延及(中略) 今者既命別遣京官趙士秀推之 推官亦當斟酌施行 豈必濫及無辜 敬差官拜辭時 以傳教之意 下諭何如”

7) 『端宗實錄』 2년(1454) 12월 7일, “以僉知中樞院事元孝然爲對馬州敬差官 其齋去禮物(下略)”

8) 『世祖實錄』 3년(1457) 6월 26일, “諭慶尙道觀察使李克培曰 大藏經五十件 始自來春二月募印于海印寺 須及六月前畢功 今遣敬差官尹贊鄭垠布置 卿其用意施行”

9) 『明宗實錄』 8년(1553) 5월 17일, “遣兵曹正郎李壽鐵於慶尙道 監軍籍 傳曰非徒爲軍籍而已 本道飢饉益甚 民皆餓死 爾當盡心求活 使不至於死也”

관찰사에게 傳旨를 내려, 그 비용을 보조하게 하였다. 이 일은 2월에 시작하여 4월에 마쳤으며, 각도의 名山巨刹에 나누어 소장하였는데, 사용된 종이는 38만 8천 9백여 貼이었고, 식량이 5천 석이었다고 한다.¹⁰⁾ 이 때 인출한 대장경은 1461년에 설치된 간경도감에서 중요 텍스트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② 宣慰使

宣慰使는 조선시대 여러 나라의 使臣이 입국하였을 때 그 노고를 위문하기 위하여 파견한 관리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남방 지역에 대한 대처와 접대 등에 차이를 보였다. 중국 사신에 대해서는 遠接使와 함께 義州·安州·平壤·黃州·開城府 5개 처에 선위사를 파견하였고, 일본과 琉球國 사신은 宣慰使만 보내 迎送하였다. 또한 중국 사신에 대한 선위사는 2품 이상의 朝官을, 遼東都司의 선위사 및 日本·琉球國 사신에 대한 선위사는 정3품 이상의 朝官을 임명하였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경상도의 경우, 일본에서 파견하거나 일본을 경유해서 동래로 들어오는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 선위사가 파견되었다. 일본에서 사절이 오면 慶尙道觀察使가 禮曹에 알리고, 禮曹에서는 남해안에 있는 倭館에 선위사를 파견하여 그들을 접대하고 上京을 돕도록 하였다.¹¹⁾ 申叔舟의 『海東諸國記』 「朝聘應接紀」에는 使船定數를 비롯하여 諸使定例, 使船大小船夫定額, 給圖書, 諸使迎送, 三浦熟供, 三浦分泊, 上京人數, 三浦宴, 路宴, 京中迎餞宴, 晝奉杯, 京中日供, 闕內宴, 禮曹宴, 名日宴, 下程, 例賜, 別賜, 留浦日限, 修船給粧, 日本船鐵釘體制, 上京道路, 過海料, 給料, 諸道宴儀, 禮曹宴儀, 三浦禁約, 釣魚禁約 등 29가지 조목으로 선위사의 임무, 급료 지급, 일본 사신의 접대 과정, 상경 코스, 제한 물품, 체류 기간 등을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한 같은 책 ‘上京道路’ 조에는 “乃而浦에서 수로로 金海-黃山江에서 아래로 洛東江까지-昌寧·善山·忠州-金泉에서 한강까지-廣州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데는 19일 길이 된다. ○富山浦에서 수로로 梁山-황산강에서 낙동강까지-창녕·선산·충주-김천에서 한강까지-廣州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데는 21일 길이 된다.”¹²⁾라고 하여 水路로 밀양을 경유하는 코스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영남루는 宣慰使들이 일본 사신들을 접대하는 장소였으며, 이들이 남긴 시는 『嶺南樓詩韻』에 남아 있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선위사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

10) 李廷馨, 『東閣雜記 上』, 『本朝瑠源寶錄』, “世祖三年 天順丁丑 教印出大藏經五十件 板在陝川海印寺 遣差官尹瓚 鄭垠 董其事 且使僧信眉竹軒等監督 諭旨于各道觀察使 助其費 戊寅二月始役 四月畢印 分藏于各道名山巨刹 凡入紙地三十八萬八千九百餘貼 役糧五千石 他物稱是”

11) 金健瑞 등, 『增正交隣志』 제3권 <出使官> 참고.

12) 申叔舟, 『海東諸國記』 「朝聘應接紀」 ‘上京道路’, “○自乃而浦水路 由金海 自黃山江下至洛東江 昌寧善山忠州 自金泉至漢江 廣州至京城 十九日程 ○自富山浦水路 由梁山 自黃山江至洛東江 昌寧善山忠州自金海至漢江 廣州至京城. 二十一日程”

루 본당에 제영시를 남긴 선위사는李克培(1422-1495)부터 林億齡(1496-1568)까지 총 7인이다. 능파당에 제영시를 남긴 선위사는李則(1438-1496)부터 黃瑞(1464-1526)까지 5인이다. 그러므로 『영남루시운』에 수록된 선위사들은 총 12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성세창과 정광세가 중복되므로 實數는 10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李克培, 鄭世光(미상), 이척은 15세기에 과건된 인물들이다. 선위사들의 품계가 당상관 3품 이상이기에는 이들의 과건과 임무는 실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이극배와 金駿孫(1455-1507)의 경우는 다소 상이하다.

선위사 중에서 주목할 인물은 徐厚(미상)이다. 그의 본관은 대구이며, 부친 徐彭召가 서거정의 조카이다. 『中宗實錄』 16년(1521) 5월 7일 조에는 서후가 선위사로 다니면서 경상도 지방의 찰방을 다시 설치하고 戰艦인 大猛船을 다시 부활시키자고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그가 선위사로 과건된 것은 1521년 무렵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嶺南樓詩韻』에는 서후의 題詠詩 아래에 경상도관찰사 金克成과 경상도도사 沈彦慶의 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增補慶尙道先生案』에 김극성과 심언경의 재임 기간이 1520년 5월부터 1521년 4월 30일까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은 移任과 동시에 밀양으로 왔고 영남루에서 선위사 서후와 모임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다.

경상도관찰사와 선위사가 협력하여 일본 사신을 접대한 일은 『嶺南樓詩韻』의 朴素立 관찰사의 경우에 보다 명징하게 확인된다. 다음의 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誤身方覺坐虛名 몸을 그르치면 헛된 명성에 연루됨을 깨달았으니
薄劣何能佐聖明 용렬한 재주로 어떻게 성명한 군주 보좌하리오.
溢美瓊詞知未副 넘치는 재주 옥 같은 글 숨쉴 부응하지 못함을 알았고
省躬深愧負平生 자신을 성찰에 부끄러움 많아 평생을 지고 가리라.

인용한 시는 1578년경 박소립이 일본 사신으로 온 승려 景轍에게 차운하여 보낸 시이다. 일본 사신으로 온 경철을 접대한 사실은 왕조실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명종실록』 11년(1556) 10월 19일에 “上이 勤政殿에 나아가 日本國王의 使臣인 上官 僧 天富東堂과 副官 僧 景轍西堂 등을 접견하였다.[上御勤政殿 接見日本國王使臣上官僧天富東堂副官僧景轍西堂等]”는 기록이 있으며, 18년(1563) 4월 11일에 “상이 친히 日本國王의 사신 景轍東堂 등 20여 인에게 慶會樓 아래에서 잔치를 내리고 女樂을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차등 있게 물품을 내렸다.[上親宴日本國王使臣景轍東堂等二十餘人于慶會樓下 陳女樂 宴訖 賜賚有差]”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도 李尙質(1597-1635)의 『家州集』 권5 <贈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藝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行通政大夫禮曹參議知製教權公行狀>에 “기묘년 여름 濟用監正으로 선위사가 되어 영남에서 일본 사승 경철과 청암을 맞았다.[己巳夏濟用監正 以宣慰

使接日本使僧景轍清菴于嶺南]”라는 기록과 具思孟의 『八谷集』 권2 <次日本副官韻>의 주석에 “일본 국왕 사신 경철동당과 수한서당이 돌아간다가에 괴산군에서 연회를 열었다. 각각 절구 1수를 보내니 사례의 글이 왔는데, 그 시는 취할 바가 없어 수록하지 않는다.[日本國王使臣景轍東堂守閑西堂 使還宴亭于槐山郡 各贈一絕次而回謝 其詩無可取不錄]”라는 기록이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 權擘과 具思孟이 경철을 접대했음을 알 수 있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선위사들의 시를 통해, 이들의 題詠詩는 본당과 凌波堂에 한정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는 영남루 본당과 능파당이 일본 외교의 현장임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국 사신을 迎賓하는 선위사가 경상도관찰사의 품계와 유사한 3품 이상의 당상관이었음을 고려하면, 본당과 凌波堂의 기능과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㉔ 宣傳官, 御使, 從事官, 護送官 등

敬差官과 宣慰使 외에 중앙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원들로는 宣傳官, 御使, 點馬別監, 從事官, 護送官, 巡邊使 등이 있다. 宣傳官은 形名·啓螺·侍衛·傳命·出納·符信의 출납을 맡았던 무관직으로, 1457(세조 3)년에 御駕 앞에서 訓導하는 임무로 처음 역사 기록에 등장했다. 왕위 찬탈로 등극한 세조는 駕前訓導란 임시 관직을 설치하여 宿衛와 侍衛의 임무를 맡겼다가 후일 선전관을 설치하였다. 이 때문에 선전관에 임명되면 자손들에게 承蔭의 혜택이 주어졌다.

선전관은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條에 정3품에서 종9품까지 8인의 관원 수와 遞兒受祿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8인은 實宣傳官에 해당되고, 이 외에 兼宣傳官이 있었다. 겸선전관은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정해진 인원이 없었으며, 종종 조에는 대략 10여인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박홍갑 1990).

어사는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을 암행하면서 감찰하는 관리로, 당하관일 경우 御史로 표기하고 당상관일 경우 御使라 하였다. 從事官은 각 軍營 등에서 主將을 보좌하던 관직이나, 외교사절로서 正使와 副使를 수행하는 관원도 있었다. 이들은 보통 문관 5·6품의 직계로 임시로 弘文館校理의 직함을 받았다. 점마별감은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마필의 點考 및 進獻, 목장 부지 선정 등을 담당하는 司僕寺 관원이다. 護送官은 護送軍이라고도 하며, 사신들이 외국을 갔다 올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던 관원이다. 巡邊使는 변방의 軍國機務를 순찰하기 위하여 왕명을 띠고 파견되던 특사로, 郵驛·民生·農形, 軍政실태 등 변방의 전반적인 상황을 순찰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宣傳官, 御使, 點馬別監, 從事官, 護送官, 巡邊使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기타 중앙 관원은 宣傳官 1인, 御使는 누적 인원 8인, 點馬別監 2인, 從事官 누적 인원 9인, 護送官 3인, 巡邊使 2인이며, 그 밖에 曉諭副使로 高台弼 1인이 있다.

宣傳官 李長吉(미상)은 창녕에 거주하며 金宏弼로부터 학문을 사사하였고 의성현령, 平安道兵馬虞候 등을 역임하였다. 『嶺南樓詩韻』에는 본당 天字韻 1수와 凌波堂 칠언절구 2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본당 天字韻에는 그의 관직을 軍官이라 하였다. 또한 주기사항에는 그가 밀양 출신임을 부기해 두었다.

어사로 파견되어 영남루에 題詠詩를 남긴 이들은 閔德鳳(1519-1573), 河應臨(1536-1567), 金貴榮(1520-1593), 朴啟賢(1524-1580), 李士弼(1503-1556), 任權(1486-1557) 등 6인이다. 이들 중 박계현, 이사필, 임권 3인은 각각 『明宗實錄』¹³⁾과 『中宗實錄』¹⁴⁾을 통해 경상도에 어사로 파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중 박계현은 1567년(명종22) 10월 12일에 병조참판에서 경상도관찰사로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박계현은 두 가지 신분으로 영남루를 방문한 셈이 된다.

종사관 중에는 金振宗(1496-1557), 許碯(1471-1529), 柳景深(1516-1571) 3인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다. 김진중은 尹根壽가 지은 李仲悅(1518-1547)의 墓碣銘에 “갑진년(1544)에 李芑가 巡邊使로 嶺南에 갈 때 공과 直講 金振宗을 천거하여 종사관으로 삼았다.”¹⁵⁾는 기록을 통해 1544년에 이기의 종사관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허평은 倭賊을 이길 계책으로 문관을 종사관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柳順汀의 건의를 통해 1510년에 종사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 수 있다.¹⁶⁾ 유경심은 『燃藜室記述』에 순변사 金秀文과 종사관 유경심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어 1558년에 종사관이 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¹⁷⁾

고대필은 『世祖實錄』에 三浦曉諭使 藤安吉의 副使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파견 목적은 三浦 倭人의 來投가 날로 增加되어 나서 자란 인구가 繁殖함을 이기지 못하였기에 효유하는 절목을 가지고 가서 우두머리 2~3인으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였다.¹⁸⁾ 이때 효유정사 후지 야스키치[藤安吉] 등을 불러서 술잔을 올리도록 하고, 도포[襖子]와 藥囊을 각기 下賜하였다. 또 후지 야스키치에게 신[靴]을 더 下賜하였다. 실록에 기록된 당시의 정황이 고대필의 題詠詩에 그대로 녹아 있다.

萬里長江萬里天 만 리 긴 강물 만 리 하늘

森羅勝槩入簷前 뽕뽕이 늘어선 승경이 처마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13) 『明宗實錄』 10년(1555) 4월 8일, “傳于政院曰 今觀平安道監軍御史朴啟賢書狀 則朔州府使李大仲高山里僉使韓豪 或愛養黎元 或撫恤軍士 予甚嘉之 其各增秩一級”

14) 『中宗實錄』 19년(1524) 8월 29일, “分遣御史許渭【全羅道】 任權【慶尙道】 令摘奸抽慝各邑災傷及不法事刑獄 軍器等事與夫所經各官災傷” ; 39년(1544) 9월 10일, “遣災傷御史兵曹正郎李士弼于京畿”

15) 尹根壽, 『月汀集』 권6, <吏曹正郎李公仲悅墓碣銘>, “甲辰李芑以巡邊使往嶺南 芑舉公及直講金振宗爲從事官”

16) 『中宗實錄』 5년(1510) 4월 12일, “柳順汀曰 以大臣爲都元帥 則臣與成希顏 當下歸 但臣有病 精神昏耗 恐不能料事 且許碯具之愼 已爲從事官 今以臺諫爲辭 此不可也”

17)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제18권, 「邊圍典故」 <西邊>.

18) 『世祖實錄』 12년(1466) 12월 17일, “三浦曉諭使藤安吉副使高台弼辭 其齋去事日 一 宣諭三浦倭人曰 汝等初因販賣 來寓三浦 厥後潛投日增(中略) 故遣使曉諭 爲首曉諭者 兩三人上京 親聽予命”

風恬浪靜白鷗外 백구 밖으로 바람 조용하고 물결 잦으며
 城是人非黃鶴邊 황학루 가로 성만 남고 사람은 보이지 않네.
 雨霽睢園凝翠霧 비 개인 수원엔 푸른 안개가 응기고
 日斜茅店羸青烟 햇살 비긴 초가 주점엔 푸른 안개 무성하네.
 管絃聲裏傳觴急 관악기 현악기 소리 가운데 술잔 급하게 돌리니
 梅塢清香惹舞筵 매화와 오죽의 맑은 향기가 춤사위를 불러일으키네.

인용문은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曉諭副使 行僉正 高台弼의 본당 題詠詩이다. 이 시 頸聯에서 말한 睢園은 梁孝王이 賓客들을 맞이하던 兔園을 말하며, 唐 王勃의 <滕王閣序>에 “수원의 푸른 대는 그 기상이 도연명의 술동이에 넘쳤고, 업수의 붉은 꽃은 그 빛이 사영운의 붓을 비추었네.[睢園綠竹 氣凌彭澤之樽 鄴水朱華 光照臨川之筆]”라는 구절을 염두에 둔 것이다. 尾聯에서 악기 소리 들리고 술잔을 돌리는 까닭을 실록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4. 그 밖의 중앙 관원들

『嶺南樓詩韻』에는 觀察使, 都事, 敬差官, 宣慰使 등 공무 수행을 위해 영남루를 방문하여 題詠詩를 남긴 이들 외에도,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도중에 영남루에 올라 題詠詩를 남긴 이들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들의 관직은 정2품 中樞府事·判書를 비롯하여 종9품 副正字까지 다양하다. 영남루를 방문하여 題詠詩를 남긴 중앙 관원들의 내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남루 본당 마루에 제영시를 남긴 중앙 관원은 고려시대 인물인 典校寺判事 都元興(미상)을 비롯하여 前左司諫大夫 金中坤(미상), 兵曹判書 尹子雲(1416-1478), 藝文館直提學 安寬厚(1417-?), 中樞府同知事 安賓世(1445-1478), 兵曹參知 柳子光(1439-1512), 都元帥 柳順汀(1459-1512), 前司諫 李世仁(1452-1516), 吏曹正郎 李思鈞(1471-1536), 吏曹正郎 成世昌(1481-1548), 戶曹正郎 李滉(1501-1570), 承文院副正字 任尹(1505-?), 弘文副提學 周世鵬(1495-1554), 佐郎 李慶禧(1508-?), 校書館著作 孫興緒(미상), 吏曹正郎 柳根(1549-1627), 承文院正字 具成(1558-1618), 吏曹佐郎 金誠一(1538-1593) 등 총 20인이다.

능과당에 제영시를 남긴 중앙 관원은 藝文館直提學 安寬厚(1417-?)을 비롯하여 戶曹正郎 鄭臣碩(미상), 弘文館直提學 楊熙止(1439-1504), 三宰 成世章(1506-1583), 判書 鄭宗榮(1513-1589) 등 총 5인이다. 객사동헌에 제영시를 남긴 중앙 관원은 三道察訪 鄭之澹(미상), 平壤君 趙狷(미상), 大護軍 崔海山(1380-1443), 議政府知事 金希善(?-1408) 등 4인이다. 덕민정에 제영시를 남긴 중앙 관원은 吏曹判書 權擘(1416-1465) 1인이다. 남수정에 제영시를 남긴 중앙 관원은 承文院副正字 任尹(1505-?), 校理 申汝宗(미상), 正字 孫興緒(미상) 등 3인이다.

이 중에서 안관후와 손흥서는 2번 등장하므로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중앙 관원은 대략 29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영남루를 방문한 목적은 초청, 개인적 이유, 집안 잔치 등 여러 가지라고 여겨지며, 그 중에서 기록을 통해 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몇몇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趙狷은 題詠詩에서 “삼년 동안 두 번이나 영남루를 방문하였다.[三年再過嶺南樓]”라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태조실록』 3년(1394) 3월 5일에 “李承源을 양광도 도절제사로 삼고, 趙狷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삼았다.[以李承源爲楊廣道都節制使 趙狷爲慶尙道都節制使]”는 기록을 시작으로 조견은 1394년부터 1403년까지 경상도절제사, 左軍都總制 등의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영남으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견의 영남루 방문 목적 또한 절제사나 도총제의 임무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반면 1587년 경에 영남루를 방문한 具晟의 경우는 공무 수행이 아니라 집안의 잔치 참석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嶺南樓詩韻』에는 구성의 題詠詩 바로 앞에 부친 具思孟의 칠언율시 1수를 수록하였다. 당시 구사맹의 관직은 慶州府尹으로, 『八谷集』 해제에 1586년에 구사맹이 경주부윤을 역임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울러 구사맹의 시 마지막 구절이 “산과 물 넘고 건너 구경 한 번 하려했더니, 은혜로운 경사 있어 긴 잔치에 취하네.[跋涉本謀拵一賞 復因恩慶醉長筵]”인데, 『八谷集』에는 “부백의 차자 경원이 진사에 입격하여 축하 잔치연을 열었기 때문에 마지막 구에서 언급하였다.[府伯次子慶遠 中進士 設慶筵 故結句及之]”라는 주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府伯의 차자 경원”이 바로 具晟이며, 具晟 또한 題詠詩의 마지막 구절에 “서생도 고아한 모임을 곁에서 모셔 다행이니, 부질없는 세상 양친을 위한 자리가 많지는 않네.[書生亦幸陪高會 浮世無多具慶筵]”라고 하여 당시의 잔치에 참석하였음을 드러내었다. 구사맹과 구성의 시를 통해 집안의 대소사도 또한 영남루 방문 목적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Ⅲ. 『嶺南樓詩韻』 作者層 분석을 통해 본 영남루 각 건물의 기능

이상의 논의를 통해 『영남루시운』에는 중앙 및 지방관, 파견관리 등 318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관직별로 분류하면, 경상도관찰사 그룹 누적인원 117명(실수 75명), 慶尙道都事 누적인원 41명(실수 31명), 밀양부사를 비롯한 지방관 71명, 경차관 20명(실수 19명), 선위사를 비롯한 중앙 차정관원 누적인원 12명(실수 10명), 어사를 비롯한 중앙 관원은 누적인원 26명, 기타 중앙 관원 누적 인원 31명이다. 이 수치는 『嶺南樓詩韻』 소재 총 누적인원 412명의 77%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류가 가능한 것은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작품 마지막에 작자 성명과 창작 당시의 관직을 표기했기 때문이다. 관직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성명 앞에 自號나 本貫, 혹은

行客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陶隱 李崇仁, 陽村 權近, 聞韶 金正國, 過客 朴祥과 같이 이들 대부분은 조선에서 중앙 관직을 역임하거나 앞서 살펴본 그룹에 속한 인물들이다. 관직이 없는 이들은 生員 趙昱, 進士 梁澹¹⁹⁾, 洛東 文季昌, 咸川 趙淵, 鄉人 柳世湄 등 밀양 출신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嶺南樓詩韻』은 수록된 내용을 작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영남루시운』은 조선전기에 공무의 목적을 띠고 영남루를 방문한 뒤에 창작된 제영시를 총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들의 대부분은 영남루 본당 마루를 비롯하여 6개소에 揭板되었을 개연성이 크다.²⁰⁾ 그러므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시인 중의 한 사람인 東岳 李安訥(1571-1637)이 “예전 영남루에는 天字의 韻을 押韻한 시판이 있었으며, 고려 말 이래 지금까지 화답한 이가 200여 편에 이르렀다.”²¹⁾라는 언급은 매우 신뢰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영남루 본당 마루와 凌波堂, 枕流堂 등 3개의 건물이 조선전기까지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嶺南樓詩韻』에 수록된 경상도관찰사와 경상도도사의 명단 및 재임기간을 분석한 앞 장의 두 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상도관찰사들의 枕流堂 題詠詩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상도관찰사들이 枕流堂에 머무르지 않았거나, 최소 숙박한 사실이 없음을 추정케 한다. 달리 말하면, 枕流堂은 경상도도사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셈이다. 경상도도사로 재임하던 權技에 의해 枕流堂이 창건되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추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영남루 본당과 凌波堂, 枕流堂의 공간적 기능에 대해선 黃士祐(1468-1536)의 『在嶺南日記』를 통해 일부분을 엿볼 수 있다. 『在嶺南日記』는 중종13년(1518) 11월 17일부터 1520년 9월 8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경상도도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일기이다. 황사우는 재임 기간 동안 2차례 밀양을 巡歷하였는데, 당시의 정황을 『在嶺南日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일찍 출발하였다. 監司와 水使 두 분이 출발하여 黃山江에 이르러 배를 타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 密陽 地境에 이르렀다. 黃山察訪은 뒤에 처졌다. 密陽 嶺南樓 앞에 이르러 옥지에 내렸다가 다시 배를 타고 물을 건넜다. 縣監 黃孝獻 叔貢 공과 【及第 同年이다.】 訓導 黃鐘 公, 昌原府使 蔡紹權 公과 訓導 徐坎元, 漆原縣監 曹繼殷 【訓導는 없음.】 咸安訓導 俞汝弼, 靈山縣監 李麟壽 【훈도는 없음.】, 省峴察訪 李鐵境 등이 客館에서 왕명을 맞이하였다. 禮를 마치고 監司가 嶺南樓에 도착하였다. 이때 右兵使 金克成이 먼저 들어와 북쪽 別室로 내려갔고, 左水使는 나와 함께 뒤편

19) 기존 연구에서 梁澹에 대한 전기 기록 등을 찾을 수 없어 生沒年을 미상으로 남겨 두었다. 학술대회 이후 밀양에 거주하는 양진석님으로부터 양담의 생몰년을 1483년 경-1565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제보와 함께 『雲山實紀』 등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0) 정경주 교수는 발굴 자료 『영남루시운』이 조선 전기 밀양부에서 제작한 官本의 副本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후일을 기약한다.

21) 李安訥, 『東岳集』 권8, <次嶺南樓舊韻>, “樓舊有詩板 押天字韻 自麗季及我國朝 和者至二百餘篇”

북쪽 別室로 내려갔다. 모두 관리들의 春秋 褒貶에 대한 의논을 하려고 해서였다. 監司는 望湖堂으로 내려가고, 나는 小樓로 내려갔다. 監司, 左水使, 右兵使 세 분이 樓閣에서 집무를 함에,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 뵙기를 청하고 나왔다.²²⁾

인용문은 『在嶺南日記』 1519년 7월 8일자 부분이다. 이날 영남루에 모인 관원은 慶尙道觀察使, 慶尙道右兵使, 慶尙道右水使, 慶尙道都事 등 4인을 비롯하여 密陽縣監, 昌原府使, 漆原縣監, 咸安縣監, 省峴察訪 등이었으며, 밀양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訓導 등이 집결하였다. 그러나 영남루에서 집무를 본 이들은 慶尙道觀察使와 慶尙道右兵使, 慶尙道右水使, 慶尙道都事 등 4인이다. 고을 수령들이 영남루에서 집무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첫 번째 사항은 경상도우병사 김극성은 북쪽 별실로 내려가고, 경상도우수사와 경상도도사는 뒤편의 북쪽 별실로 내려갔다는 사실이다. 각자의 공간에서 수령들의 春秋褒貶을 의논했다는 말은 공식적인 업무를 보았다는 뜻이다. 이 기록으로 영남루에 凌波堂과 枕流堂 외에 별도의 집무 공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업무가 끝날 무렵 경상도감사는 望湖堂으로, 경상도도사는 小樓로 내려갔다는 사실은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이다. 주지하듯이 望湖堂은 凌波堂의 별칭이며, 小樓는 枕流堂의 이칭이다. 이 기록으로 영남루에서 凌波堂은 경상도관찰사의 공간이며, 枕流堂은 경상도도사의 공간임이 확인된다. 宣慰使의 영남루 제영시가 오로지 본당 마루와 능파당에 한정된다는 사실 또한 영남루와 직접 연결된 세 건물의 기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²³⁾

셋째, 영남루 제영시의 작자층은 공무수행을 위해 영남루를 방문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영남루 題詠詩 작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교류 관계를 강화하고 자연 승경을 통한 호연지기의 함양 등의 목적으로 영남루를 방문하였다. 그래서 영남루 題詠詩 중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은 주인 공끼리 직간접적으로 친분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申光漢(1484-1555), 安宙(1495-?), 仇有溫(미상), 朴世熙(1493-1550), 周世鵬(1495-1554) 다섯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安宙와 朴世熙는 密陽府使라는 공통적인 직함으로 엮여 있다. 구유온은 밀양에서 활동하는 재야인사지만, 문장과 덕망으로 이름이나 朴世熙의 추천으로 상량문을 짓게 되었다. 그 외의 인물들은 중앙 관직에서 같이 근무했거

22) 黃士祐(황위주 탈초·국역), 『在嶺南日記』, 1519년 7월 8일자, “早發 兩使出 至黃山江 乘舟 曳流 至密陽地境 黃山察訪落後 至密陽嶺南樓前 下陸 還渡舟 縣監黃公孝獻叔貢 【及第同年】 訓導黃公鐘 昌原府使蔡公紹權 訓徐坎元 漆原縣監曹繼股 訓無 咸安訓俞汝弼 靈山縣監李麟壽 訓無 省峴察訪李鐵境 迎命于客館 禮畢 使相至嶺南樓 時 右兵相金克成先入 下北別室 左水使偕僕以下後北別室 皆議春秋也 使相下望湖堂 僕下少樓 三使坐樓 僕及諸公皆請謁 出”

23) 진주의 축석루 또한 영남루와 동일한 기능을 가졌음을 『在嶺南日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在嶺南日記』, 1519년 6월 25일자, “南海縣令閔承韓 訓導無迎命 禮畢 諸邑共迎者 急於褒貶 不欲歸 奭政之故也 使相坐巖石樓除禮 講諸訓導 諸他郡 皆下直請謁 使相以南海守講大典 諸郡雖請謁 猶留” 및 6월 27일자 “曉 使相 各食於房 謁聖于巖 坐巖樓 牧使入 暫刻 還坐巖石樓 趙之瑞子前參奉趙鼎來謁使 卽還” 등 참고.

나,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다. 신광한과 朴世煦는 1547년(명종2)에 예조에서 判書와 參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으며, 그 이전인 1544년에는 신광한이 朴世煦를 승지로 천거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朴世煦가 영남루를 중수하고 신광한에게 <嶺南樓重修記>와 <凌波堂重創記>를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주와 주세붕의 관계도 일상적인 교류관계를 넘어선다. 안주가 형조정랑에서 밀양부사로 부임될 때 주세붕은 송별시²⁴⁾를 지었다. 이 시는 전승되던 영남루 天字韻을 차운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세붕은 일찍부터 영남루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攬秀亭記> 또한 朴世煦가 주세붕에게 특별히 간청하여 작성된 것이다.²⁵⁾

血緣 관계의 경우 조선 전기 문벌 가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昌寧成氏, 安東權氏를 비롯하여 高靈申氏, 義城金氏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창녕성씨는 본당에 天字韻 七言律詩 1수를 남긴 成元度を 필두로, 객사동헌에 廻字韻 七言絕句 2수를 남긴 成念祖(1398-1450), 본당 天字韻 七言律詩 3수와 凌波堂에 頭字韻 七言絕句 2수를 남긴 성엄조의 손자 成世昌(1481-1548) 등이 있다. 凌波堂에 詩字韻 七言絕句 1수를 남긴 成世章(1506-1583) 또한 昌寧成氏이다.

안동권씨는 權近(1352-1409)를 필두로 그의 손자 權擘(1416-1465), 權攀(1419-1472), 그리고 5대손 權擘(1520-1593) 등이 있다. 권람, 권반, 권벽은 德民亭의 창건과 중수 내력을 기록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召樓記>의 저자 權技(1405-1467)와 權軫(1375-1435)· 權克和(미상)· 權應昌(1505-1568)· 權應仁(1517-1588) 등도 안동권 씨이다. 고령신씨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嶺南樓重修記>가 수록된 申叔舟를 필두로, 그의 두 아들 申溥(1446-?)와 申澗(1448-1487), 그리고 손자이자 <嶺南樓重創記>의 작자 申光漢(1484-1555) 등이 있다. 의성김씨는 金安國(1478-1548)과 金正國(1485-1541) 형제, 金誠一(1538-1593)과 金克一(1522-1585) 형제, 그리고 金宇弘(1522-?) 등이 있다.

IV. 結 論

『嶺南樓詩韻』은 필사본이지만 임진왜란 이전에 창작된 영남루 題詠詩 559首를 6개의 건물 및 韻目別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여기에 수록된 제영시와 상량문 등은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는 배가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孫仲敷(1463-1529)의 경우, 1495년(연산군1) 4월 22일에 형조

24) 周世鵬, 『武陵雜稿』 권4, <次嶺南樓韻 送安使君太古之任密陽>, “南樓風景冠南天 銀漢橫流繞檻前 三島雲霞來脚底 九霄星斗近頭邊 無私潤物千林雨 有象豐年萬戶煙 歸去田園纔咫尺 何時一醉使君筵”

25) 周世鵬, 『武陵雜稿』 권6, <攬秀亭記>, “今年三月 余過密陽 先生曰記吾亭 余曰有牧老而爲記者 僭也 目今文章大手 磊落相望 自有其人 不在我 先生笑而強之”

좌랑에서 경상도도사로 도입하여 영남루를 방문한 뒤 凌波堂 頭字韻 七言絶句 2수를 남겼다. 이 두 수의 칠언절구 중 “靑山斷處碧江頭 樓壓華堂堂壓流 小醉未醒風景暮 月明湖上儘堪留 (푸른 산 끊어진 곳 푸른 강 이어져, 마루는 그림 같은 방을 압도하고 방은 강물을 압도하네. 잠시 취한 술 덜 깨었는데 풍경이 저물고, 호수 위에 달 밝으니 참으로 머물만하네.)”는 『愚齋實紀』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區練川回斷岸頭 小堂瀟灑俯寒流 望窮眼界平湖闊 中有閑鷗自在留(비단 같은 냇물이 한 구역을 돌아 벼랑에서 끊어지고, 작은 당 쓸쓸하게 차가운 강물을 굽어본다. 눈길 다하는 곳에는 넓은 호수 잔잔하고, 중간에 한가로운 갈매기들이 머물러 있네.”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우재실기』 및 『우재집』에 수록된 운문이 1수임을 감안하면, 『嶺南樓詩韻』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선 채언을 필요치 않는다. 訥齋 朴祥(1474-1530)의 <嶺南樓重修祝賀詩>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嶺南樓詩韻』을 통해, 영남루 제영시 창작군은 단순히 영남루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遊賞의 느낌을 피력한 이들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수량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그룹인 慶尙道觀察使와 慶尙道都事는 주기적으로 밀양의 영남루와 晉州의 矗石樓를 거쳐 경상도 일대를 巡歷하는 일이 자신들의 공무였다. 밀양과 진주는 경상남도의 좌우를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순력 코스에 진주와 밀양이 들어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영남루와 축석루가 단순히 명승지 혹은 勝景의 장점을 지닌 것이 아님을 『嶺南樓詩韻』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行營 체제가 유지되던 조선전기에는 영남루와 축석루 및 주변 건물들이 관찰사, 도사, 兵使, 水使들의 집무실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남긴 제영시는 民心의 동태, 서울의 관직 생활로 돌아가려는 의지, 태평성대를 보좌하려는 꿈 등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경상도 관찰사를 비롯한 중앙, 지방 관원들이 남긴 영남루 제영시의 주제, 풍경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영남루시운』 제영시 작가 가운데 지금까지 개인 문집이 傳存하는 경우는 具思孟의 『八谷集』부터 黃璵의 『橡亭逸稿』까지 대략 72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天字韻을 비롯한 영남루제영시에 쓰인 韻目을 바탕으로 이 문집에 수록된 영남루 관련 시를 전수조사하면 보다 많은 수량의 영남루 제영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영남루시운』에 수록된 시와 문집에 수록된 시의 원문 대조가 병행되면, 『영남루시운』의 가치와 신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 시인인 徐居正의 嶺南八景詩가 『영남루시운』에는 9편 수록되어 있는 반면, 『四佳集』에는 10수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남루시운』의 원문서지적 접근은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太宗實錄, 明宗實錄, 中宗實錄, 宣祖實錄.
미상. 『嶺南樓詩韻』. 개인소장본.
밀양문화원. 2012. 『국역 밀주징신록』. 밀양: 밀양문화원.
밀양지편찬위원회. 1987. 『密陽誌』. 밀양: 밀양문화원.
정경주 편. 2002. 『嶺南樓題詠詩文』. 밀양: 밀양문화원.
한국국학진흥원. 2005. 『增補慶尙道先生案 上-下』.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黃士祐 저(황위주 국역). 2006. 『在嶺南日記』.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남권희, 전재동 역. 2018. 『국역 嶺南樓詩韻』.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김순남. 2004. 조선시대 敬差官과 外官. 『한국사학보』, 18: 335-360.
박홍갑. 1990. 조선전기의 宣傳官. 『사학연구』, 41: 119-146.
이수진. 2005. “慶尙道監營의 성립과 직제.”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 대전: 학민사.
전재동. 2018. 『密陽 嶺南樓 題詠詩文의 書誌의 分析-필사본 『嶺南樓詩韻』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전재동. 2017. 『嶺南樓詩韻』의 발굴과 소개-구성과 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2: 123-143.
정석태. 2017. 영남루문단의 형성과 전개양상-교류와 경쟁의 공간으로서의 영남루-. 『경북대학교국어국문학과BK+21사업단2017년국제학술대회발표요지집』, 215-248.
정출현. 2017. 영남루와 아랑 : 아랑 서사의 탄생과 그 변주. 『대동한문학』, 52: 259-288.
정현재. 1979. 조선초기의 경차관에 대하여. 『慶北史學』, 1(1): 135-17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oseon wangjo sillok(Annals of Joseon Dynasty). 199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uthor unknown, *Youngnamrusiun*(嶺南樓詩韻). Daegu: Private collection.
Author unknown, 2012. *Mirjujingsinrok*(密州徵信錄). Miryang: Miryang Cultural Center.
Miryang City Publishing Committee, 1987. *Miryangji*(密陽誌), Miryang.
Jung, Gyung Joo, 2002. *Youngnamrujeyoungsimoon*(嶺南樓題詠詩文). Miryang: Miryang Cultural Center.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ublishing Committee, 2005. (a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Gyungsangdosunan*(慶尙道先生案) 1-2. Ando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Hwang, sae woo. 2006. *Jaeyoungnamilgi*(在嶺南日記). Daegu: Institute of youngnam culture research of KNU.
- Nam Kwon Hee and Jun jae dong. 2018. *Translation of Youngnamrusiun*(嶺南樓詩韻).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m, Soon-nam. 2004. “The Gyung-Cha-Gwan(敬差官) and the regular local officers, Gwan-Chal-Sa(觀察使) and Soo-Ryung(守令),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18: 335-360.
- Park, Hong Gob. 1990. “A study of Sunjunkwan(宣傳官) in the early choson Period.”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41: 119-146.
- Lee, soo gun. 2005.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Kyungsangamyoung(慶尙監營).” *A study of Comprehensive Research of Kyungsangamyoung*(慶尙監營). Daejun (大田): Hakmin Publishing Company. Korea. 1-50.
- Jun, Jae-Dong. 2018. *Bibliographic analysis of Youngnamru*(嶺南樓) *poetry and writing in MiYang*. Ph. D. di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Jun, Jae-Dong. 2017. “Excavation and Introduction of YeonnamrooSiUn :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Format.”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72: 123-143.
- Jung, suk tae. 2017. “The Formation and Deployment Pattern of Literature meeting of Youngnamroo: Youngnamroo as a space of exchange and competiti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K+21Team Announcement book of International Conference in 2017*. 215-248.
- Chung, Chhl-heon. 2017. “Youngnamru and Arang : The Birth of Arang narrative and its variatio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daedonghanmun*, 52: 259-288.
- Jung, Hyun Jae, 1979. “On the Kyungcha-kwan(敬差官) in theEarly Yi Dynasty.” *The Kyungpook Historical Association*, 1(1): 135-170.